



새끼가 태어났어요!



최 종 옥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부
수의사/동물컬럼니스트
lovenat@hanmail.net

어느 날 한창 바깥에서 일하고 있는 데 휴대폰이 울렸다. 사무실에서 걸려 온 것인데 누군가 나를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다. 무슨 일일까? 싫어 얼른 일을 끝마치고 내려가 보니 한 가족인듯한 사람들이 와 있었다. 아버지같이 보이는 분한테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한창 머뭇거리다가 토끼를 기증하러 왔다는 것이다.

아! 토끼라! 동물원에서 동물을 구하는 방식에는 주로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교환, 구입, 그리고 기증이다. 교환은 국내 동물원 간에 잉여동물을 나누어 갖는 것이고, 구입은 국내에는 귀한 동물을 외국에서 사오는 방식이며 국내에 없는 동물이 하나 들어오게 되면 모든 동물원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기증은 집에서 키우던 귀한 야생동물이나 애완동물을 조건 없이 동물원에 주는 것이다.

과거의 예를 보면 명품 진도개라고 기증한 것이 그냥 잡견으로 판명되어 처리에 애를 먹은 적도 있어 가족 같은 건 아예 기증품목에서 제외시키고 있고 가끔 시골에서 솥뚜껑만한 큰 거북을 발견했다고 해서 달려 가보면 손바닥만한 자라나 남생이를 잡아놓고 수고비까지 요구하지만, 미안하게도 그런 야생동물들은 필요도 없고 잡는 그 자체도 불법행위라 잡은 곳에 다시 돌려보내라고 하고 오기도 한다.

그 토끼는 당시 한창 애완용으로 각광받았던 드워프종의 '라이언 헤드' 라는 토끼이고 우리 동물원에서도 마침 몇 마리 어린동물사에서 키우고 있어 기증받기로 했다. 사실 토끼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어렵게 찾아오신 분들을 다시 돌려보내기도 그렇고, 앞으로 그 토끼의 운명이 내리막길을 갈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다. 얼마나 토끼를 안고 있었던지 그

식구들은 온 몸에 새하얀 토끼털이 붙어있었다. 나는 작업복을 입어도 털이 묻을까봐 길게 손을 뻗어서 받아 얼른 상자에 넣었는데 무척 찢리는 기분이 들었다.

‘왜 기증하려느냐고 물어 더니’ 가정 사정에 의해 예전처럼 정성껏 돌봐주기도 어렵게 되었고, 자꾸 커가니 넓은 테로 보내주어야 할 것 같아 그런다는 것이다. 일단은 토끼장을 보여드리면서 환경은 집보다 열악할지 모르지만 동료들이 있고 넓은 공간이 있어 토끼들에게 더 좋을 거라고 안심시켜 드리고 돌려보냈다.

그분들은 비록 울면서 떠났지만 이제부터 내 일이 남겨졌다. 낯선 환경과 다른 동료들에게 적응을 시키는 게 급선무였다. 하지만 그것도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처음에 조금 쫓겨다니는가 싶더니 이내 어울려 다녔다. 사랑받는 동물들의 최강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건강과 적응력이다. 사랑의 힘은 그만큼 여운마저 강한 것이었다.

동물들 적응형태의 최대의 정점은 바로 번식에 있다. 어느 날 토끼장에 이상한 것이 있어 자세히 보았더니 아! 글썽 기증받은 그 토끼가 굴을 파고 그 속에 새끼를 몰래 여섯 마리나 넣어놓았다. 태어난 지 한창 지난 듯 새끼 토끼들도 모두 건강하게 뛰어다니고 있었다. 나도 기뻐지만 나보다도 더 기뻐해야 될 분들이 있는 것 같아 급히 전화번호를 찾았다.

바깥에서의 애완동물유행에 따라 기증동물들도 다양해진다. 토끼에 이어 대표적인 것이 이구아나이다. 내심 멋진 뱀이 좀 와 주었으면 하는 데 아직까지 뱀은 그리 활발히 키우는 종류는 아닌 모양이다. 동물 마니아들에게 포유류와 파충류의 중간교량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구아나나 게코 같은 도마뱀 종류이다. 파충류의 매력 중의 하나는 바로 혐오스러움에 있다. 그 혐오와 매력의 경계는 무척 애매해서 일단 혐오를 극복하고 나면 그 매력 속으로 깊게 빠져드는 것이다.

토끼의 경우와 같이 한 여학생이 찾아왔다. 이구아나를 키우고 있는 데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어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 기증하겠다는 것이다. 집에서 키우면서도 식구들의 눈치에 상당히 시달린 듯 했다. 아무것도 들고 온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 어디 있냐고 했더니 바로 품속에서 죽히 1m는 되어 보이는 이구아나를 꺼내놓았다. 그 이구아나는 밝은 연두빛의 빛나는 피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동물원의 칙칙한 녹색의 이구아나와 사뭇 대조적이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그 주인의 말귀를 모두 알아듣는 다는 것이다. 내 짧은 소견

으로 파충류는 사람의 말귀를 알아듣기 힘든 걸로 알았는데 바로 수정해야 될 판국이였다.

학자나 언론에서 가끔 파충류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파충류의 피부에는 살모넬라균이 상재돼 있으니 가급적 만지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이렇게 부대끼고도 모두 건강한 걸 보면 그 이론에 그렇게 신빙성이 있지는 않는 것 같다. 내 손에 잡힌 이구아나는 달아나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그렇게 동물을 내 말기시려는 분들은 조금 내가 미숙하거나 거칠게 다루더라도 함부로 말을 못한다. 왜냐하면 마치 자식을 버리는 엄마처럼 엄청난 죄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학생도 장담컨대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감당하기 힘든 죄책감과 결핍증에 한동안 시달릴 것이다! ♡

